

한 농투성이의 회고



전 민통련 농민분과위원장 배종열

1934년생, 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 회장, 민주쟁취국민운동 광주전남본부 상임의장
현 전남세남부 채소농협조합장

아련한 옛이야기로 느껴지는데

내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 있는 그 흔적을!

되살려낼 수 있을까?

천방지축 허튼소리일지라도 이야기해 보자꾸나!

1. 민통련에 참여하기까지

나 같은 농투성이가 한국기독교농민회총연합회(기농) 회장이 되어 연합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민중민주운동협의회에 동참하면서부터였다.

이 과정에서 이부영, 장기표 동지 등을 새로 만났고, 신민당 총재직에서 제명당한 김영삼 전 대통령이 초췌한 모습으로 당시 종로1가에 있던 민민협 사무실을 찾아와 위로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민통련으로 통합한다니 나로서는 탐탁치 않았다. 나는 마냥 고지식한 원칙주의자였으니까 말이다. 농민회 출신이니까 막연한 민중주의에 매몰되지나 않을까, 대중조직연대를 원했는데 명망가 중심으로 회기하지 않나, 해서 가입을 망설이게 되었

다. 종로5가(기독교운동권)에서는 가입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기농은 기독교운동이라기보다 민중운동진영이니 기독교내의 합의에만 따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연대운동의 방향에 대하여 민청련에 정책조언을 부탁했다. 민청련과 공동협력을 위해서 종종 종로4가의 조용한 다방에서 민청련의 정책위원장이었던 고 김병곤 동지를 자주 만나곤 했다. 이렇게 2~3개월이 지나서 기농은 민청련과 함께 민통련에 가입했고 나는 농민분과위원장을 맡았다.

민통련 활동에서 집회나 회의 장소로 많이 이용했던 곳은 장충동의 분도회관, 돈암동 근처의 상지회관, 홍제동의 김승훈 신부님이 시무하던 성당, 지하철 합정역 가까이 있었던 가톨릭 수련관이었다. 상지회관에서 모일 때마다 김근태 현 보건복지부장관의 정세분석에는 모두들 감탄했지!

나는 주로 농촌현장활동으로 시간에 쫓기고 있었으므로 민통련의 공동투쟁의 현장에는 참여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돕기 위해 청계천 7가에 있었던 청계피복사무실에서 대책회의에 같이 하고 농성을 했던 기억이 새롭다. 그 때 문익환 목사님도 같이 계셨는데 요가를 많이 하셔서인지 몸이 무척 유연하셨다. 하긴 나도 그 뒤로 감옥에서 수련해서 그 경지에 이르게 되었지만 말이다. 몸의 유연함은 문익환 목사님께 배웠는데 그분의 통일운동은 발벗고 따라가도 따를 수 없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민통련 활동에서 투쟁의 현장과 어려움 당하는 현장에는 항상 문익환 목사님과 계훈제 선생님이 계셨다. 나도 나이가 들어가지만, 젊은이들의 고통의 현장에 달려가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 당시 목동이 철거 대상 지역이어서 몇차례 지원차 빈민운동을 하던 이철용 전 의원과 활동한 게 기억난다.

2. 미대사관 앞뜰 농민시위

1985년도의 기농의 투쟁과제는 '소값피해보상과 외국농축산물수입반대' '반외세반독재 투쟁' 을 벌이는 것이었다(기농 제3차 정기총회 자료 중 85년 활동보고 인용). 기농은 농민의 요구를 대중적으로 환기시키고 농민투쟁의 결의를 높여 반외세자주화투쟁으로 부각시켜 나가기 위해 미대사관 내 진입투쟁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다음 달 5월 23일, 학생들의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을 촉발시켜 반외세자주화투쟁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1) 전봉준 장군 추모식 및 미국농축산물 수입개방요구 규탄대회

1985년은 갑오농민전쟁의 지도자 전봉준 장군이 농민해방의 피맺힌 한을 품고 돌아가신

지 90돌이 되는 해이기도 했다. 당시 농민군의 척양척왜 반봉건 농민해방투쟁의 의지를 이어받아 그 당시 1천만 농민 미국농축산물수입반대운동을 즐기치게 전개하기 위한 '전봉준 장군 90주기 추모식 및 미국 농축산물수입개방요구 규탄대회'를 4월 22일 오후 4시에 영등포산업선교회관에서 가졌다. 약 100명의 농민들과 300명의 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대회를 정부당국이 무장경찰 600여명을 동원하여 완전봉쇄하였다. 그래서 미리 들어온 50여명의 농민들과 못 들어온 300여명의 농민, 학생, 시민들이 안팎에서 '수입반대', '농민만세', '농민운동 탄압말라'를 외치며 항의시위를 벌였다.

(2) 4월 22일 미대사관 농민시위

6시 30분경 봉쇄경찰과의 협상 끝에 우리 농민들은 간단한 추모식을 가진 후 삼삼오오 짝을 지어 미대사관 건너편 세종문화회관 앞에 집결하였다. 20여명이 집결하자 나의 '출발'하는 구호를 신호삼아 미대사관을 향해 돌진하였다. 그러나 중간분리대에 도착하자, 반대편에 달리는 차가 워낙 많고 반대편에서 겹겹이 경찰이 달려들어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다. 우리들은 '현정권은 외국농축산물수입을 즉각 중지하라', '미국은 농축산물수입개방요구를 즉각 철회하라', '레이건 미국대통령에게 드리는 1천만 농민의 공개서한', '전두환대통령에게 드리는 1천만 농민의 공개서한' 등의 유인물과 플래카드를 펼치며 시위를 벌이다가 16명이 종로경찰서에 연행되었다. 나는 종로경찰서장실로 인도되었는데 서장이 차를 권하면서 "잘하셨습니다. 하실 일을 하셨습니다. 미국이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튿날은 기억이 안 되나 민족적 양심을 가진 서장임에 틀림없었다.

(3) 4월 23일 미대사관 앞뜰에서 농민시위

오전 8시 35분경, 농민 8명이 전날에 이어 미대사관에 찾아갔다. 무사히 미대사관 마당까지 들어가서 '미국농축산물수입개방요구 즉각 중지하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펼친 뒤, '미국은 농축산물수입개방요구를 즉각 철회하라'는 유인물을 뿌리며 스크림을 짜고서 농민가를 부르며 수분간 연좌시위를 했다. 이 때, 50~60명 정사복 무장경찰이 정문을 타고 들어와 마당 안에서 평화적으로 시위하던 농민들을 강제 연행하였다.

이에 기독교농민회에서는 이사인 박형규 목사님 등 몇 분이 미대사관을 방문 항의하였고, 그 사이 기농은 한국 경찰을 불러서 농민들을 연행하게 한 것에 대하여 항의서한을 발송했다.

경찰측에서는 우리들을 23일 석방한다고 했으나, 강제 연행에 대한 항의의 표시로 귀가를 반대하자 우리들 26명(농민 23명, 시민 1명, 학생 2명)을 오후 6시에 대전경찰서까지 버스로 수송한 뒤 각 해당경찰서 직원들이 대전에 와서 동행하는 방법으로 강압적으로 해산시켰다.

3. 서대문 구치소에서의 투쟁

나는 87. 1. 8일부터 87. 3. 3일까지 서대문 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그 당시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막바지 발악을 하는 시기였다. 당시 구치소에서는 건국대학교에서 집회를 하던 학생들을 경찰병력을 동원하여 포위, 구속해버린 애학투사건의 대학생들 100여명이 구속 수감되어 있었고, 민통련 총무국장이던 장영달 현 의원, 동아투위 김태홍 현 의원, 이돈명 변호사, 허병섭 목사, 그 당시 기농 사무국장이던 최종진 장로 등도 구속 수감되어 있었다. 나는 애학투 학생들이 수감되어 있던 서대문 구치소 10사에 4일간 수감되어 있었는데, 세상에는 찾아볼 수 없는 폭압적 수감생활이었다. 여기서 4일째 9사로 옮겨졌는데 세면 시간에 김태홍 현 의원이 찾아왔다. 3일을 지내고 다시 3사로 옮겨져 그 곳에서 면회접견을 다니면서 장영달 의원, 이돈명 변호사, 허병섭 목사님을 뵈게 되었다. 내가 구속수감된 것은 민통련 농민분과위원장으로 농가부채 전국대책위원장을 맡아 당시 신민당사 이민주 총재실에 들어가 농성을 하고, 노태우와 야합하는 이민주총재를 기자들 앞에서 신랄하게 비판한 패썹죄 때문이었다.

2월이 되어 면회 온 분들로부터 박종철 열사의 죽음이 알려지면서 얼어붙었던 구치소 안은 뜨거운 투쟁의 장소로 변해갔다. 민주재소자들은 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하루에 몇 번씩 함성을 지르기로 했는데, 한 방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면 온 방들이 들썩들썩했다. 특히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까지 끝나면 민주재소자들은 출입구 앞에 모두 나와 서서 '박종철 열사 살려내라', '군사정권 퇴진하라', '양심수전원 석방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싸워나갔다. 교도관들은 퇴근도 못하고 민주재소자 방 앞에 나와 민주재소자들의 투쟁을 막으려고 노력했으나 허사였다. 그 외에도 각종 교도소내 투쟁을 벌였다. 이런 과정에서 민주재소자들의 재판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나와 최종진 사무국장은 3월 3일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되었다.

4. 광주에서 6월항쟁

그 후 귀향한 나는 광주전남 민중운동의 연합체인 전사협의 의장을 맡게 되었다. 4월부터는 민주헌법쟁취 전남국민운동본부(이하 전남국본)를 발족하기 위해 서울과 협력하면서 정치지향운동조직인 전남민주회복국민회의(홍남순 변호사 주도)측과 계속 접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전사협 가맹단체 중심으로 '전남국본'을 발족하고 나는 상임의장에, 최성호 회장 등 몇 분이 부의장을 맡아 5월 18일, 5·18묘역에서 열린 5·18추모집회에서 발족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전남국본은 발족과 동시에 6월항쟁을 준비해갔다. 6월 10일 오후 2시에 금남로에는 삼엄한 경찰들의 봉쇄가 펼쳐졌다. 그러나 오후 2시 정각이 되자 금남로에 대중들이 운집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집회를 시도했다. 그러나 경찰이 페퍼포그를 난사하여 집회는 무산됐다. 그러자 보수교회인 금남로 총장교회와 중앙로 서현교회 등이 시위대중에게 개방되고, 백여명의 예배를 입은 개신교 목사들의 도청앞 행진이 이어졌다. 오후 6시경이 되자 금남로와 중앙로 서현교회 앞에는 시·도민으로 인산인해를 이루었고 그 후, 며칠 동안 6월항쟁의 열기가 드높았다.

6월항쟁이 끝나고 나면서 전남국본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재구성 논의가 합의되었다. 상임대표를 배종열 의장, 문병란 교수(이상 전국본부 공동대표) 이기홍 변호사, 강신석 목사, 정동련 의장, 김영진 전 의원 등으로 구성하고 공동대표로 30여명을 추대하였다. 이후 이한열 열사 장례를 5·18묘역으로 모시기 위해 배종열, 김영진 상임의장단이 연세대학교 장례위원회 측에 파송되어 연세대 집회와 서울시청앞 집회, 전남도청앞에서 5·18묘역에 이르는 행사를 진행시켰다.

이후 민통련 가맹단체들은 비판적 지지와 단일화로 진통을 겪었다. 민통련 중심세력은 비판적지지 편이었으나 이재오 현 한나라당 의원 측이 강력히 반대의사를 개진하여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진통을 겪는 것으로 기억된다. 돌이켜 보면 민통련의 비판적지지는 결과적으로 민주화세력의 분열과 군사정권중식을 이룩하지 못한 원죄를 가지고 있다.

5. 대통령선거부정 규탄투쟁

우리 민통련 회원이나 전남국본 회원들이 김대중 후보 비판적지지로 대선투쟁에 온힘을

다했지만 결과는 양 김의 낙선, 노태우의 당선으로 귀결되고 말았다. 서울에서 구로구청투표함사수투쟁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에서도 연일 부정선거규탄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광주·전남 민민운동지도부는 광주광역시 백운동 전교조 정해직 선생의 아파트를 빌려 합숙회의를 하면서 규탄대회를 추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정선거규탄집회가 힘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전남지역 시·군 단위의 규탄대회가 더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분석하고 각 시·군별 책임자를 지명하여 시·군 규탄대회를 독려키로 했다.

나는 나주시를 포함한 전남서남부쪽을 책임지게 되었다. 20일 일요일에 나주시 영산포우시장에서 개최하는 규탄대회에 참석하고, 곧바로 오후 4시부터 개최하는 무안군 규탄대회로 향했다. 하지만 무안군집회는 서울에서 기동경찰부대까지 증원받아 규탄대회를 원천봉쇄하는 상황이었다. 시위대는 읍 동편의 광·목간 도로에서 집회를 하다가 경찰의 추격으로 들녘으로 흩어졌는데, 석양 어스름이 짙어지는 시간에 서둘러 시위대로 찾아가다 그만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다.

당시 체포된 시위대가 기동경찰차에 태워지자 경찰의 폭압적 만행이 자행되었는데 서울에서 내려온 기동대의 한풀이 폭력이었다. 연행된 7명은 소총 개머리판과 서까래에 준하는 몽둥이로 난타를 당했다. 그 중에 중학생이 1명 있었는데, 그 학생이 맞는 것을 본 내가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대들었더니 그들은 내 몸을 온통 두들겨 부셔버렸다. 나는 반주검이 되었다.

경찰은 아침이면 면회오는 민민단체나 교회 지도자들에게 내 몸골이 발견될까 두려워, 밤사이 광주광역시 서부경찰서 뒤의 공안분실로 옮겨 근처의 동산병원에서 나를 몰래 치료하면서 구속수사를 했고 가족면회도 거절하였다. 나는 광주 구치소에서 수감되어서 누워 있어야 했고, 종종 외부 병원에 치료를 받으러 나가야 했다. 그런 가운데도 구속된 학생들에 대한 탄압에 항의해서 부상한 몸으로 철문차기투쟁을 벌여 구속자들로부터 존경의 인사를 받기도 했다.

1988년 2월 16일 구정을 하루 앞두고 나는 노태우의 기만적 유화책으로 석방되었다. 출소하자 바로 13대총선에 접어들었고, 주위의 동지들이 총선에 참여하게 되다보니 나에게도 국회 출마 권유가 이어졌다. 그러나 나는 민민운동 진영에 남기로 다짐하고, 동료들과 함께 광주·전남 민민운동을 다시 정비하였다.

당시 연대운동 틀인 전사협을 광주전남민중운동협의회로 정비하여 의장직을 맡았고, 민중학교를 개설하여 광주전남 민중운동의 활성화에 힘썼다. 또한 전국적으로는 새로운 전국

민중민주운동연합조직 건설에 참여하여 전민련을 출범시키고, 89년 대투쟁을 준비하게 되었다.

우리가 동네북인가?

민통련 시절에는 서대문 구치소에!

국본 시절에는 광주 구치소에!

89년, 전민련 시절에는 광주 교도소와 대전 교도소에!

거의 1년에 1차례씩 처박혀 별을 셋이나 붙이게 되었다.